

과테말라 선교보고 (제 44 호)

(12 월 10 일, 2016 년)

12 월에 피는 봄 꽃들

12 월에 이곳에는 가끔 서리도 내리지만 선교사 숙소의 작은 화단에 만발한 철쭉, 민들레, 복숭아나무꽃, 각종 장미꽃, 형형색색 코스모스, 키다리 보라꽃 난초, 새빨간 초롱꽃 등등 과테말라 현지의 12 월 풍경입니다. 이들 자연의 꽃들도 세상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 환영하는듯 합니다. 그러나 건기철이라 화산재, 자동차 매연, 비포장 도로 흙먼지 등 심한 먼지속에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. 또한 10 월, 11 월 두 달간에 장례를 5 번 치루며 가슴아픈 일들도 있어서 아직 슬픔에 잠긴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금년 1 월에 취임한 새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큰 문제 없이 안정된 정치에 다소 국민들이 동요 없이 잘 지나게 되어 감사하고 있습니다.

현지 선교사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사역에 건강하게 열중하고 있음을 여러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제 1 교회 소식

지난 10 월 이후의 제 1 교회 소식입니다.

- **신학교 종강** : 신학교는 금년 마지막 수업을 11 월 18 일에 종강을 했습니다. 내년 3 월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됩니다. 본교회는 마지막날 만찬과 선물로 그들의 수고에 치하했습니다.
- **노숙자 초청 전도** : 11 월 19 일에는 본교회 여선교회 주최 노숙자들을 초청하여 아침 식사를 대접하며 개인 전도를 실시했습니다. 처음이라서 많이는 참가안했지만 12 명이 참석하여 8 명이 예수를 눈물로 영접했습니다. 돌아갈때는 날씨가 추워서 필요한 점퍼와 속내의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. 수고한 여선교회에 감사합니다. 이제는 선교사가 잔소리 안해도 자기들 스스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여 더욱 고마웠습니다.
- **2016 년 VBS** : 금년에도 130 여명의 어린이들을 20 여명의 교사들과 5 일간 VBS 를 실시했는데 어린이들이 즐겁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. 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로 많은 교재와 공작품들을 만들고 목요일에는 일일 놀이 동산에 가서 즐거운 놀이도하고 야외 수업도하여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끝내 어췌워하며, 한건의 사고도 없이 잘 마치고 11 월 27 일 주일에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와 각 학급별로 발표회를 했는데 순서마다 어린이들의 재롱과 성경암송, 무용, 연극 등 다양하게 발표하여 교회와 학부모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고 어린이 때문에 처음 교회를 방문한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 갔습니다. 어린이들은 그 동안 공부한 재료들과 큰 선물을 한아름씩 받고 함박 웃음으로 돌아 갔습니다.
- **전교인 전도일** : 11 월 26 일을 금년에 처음으로 전교인 전도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, 중고등부, 어른들 모두 나와 길거리 전도와 실내전도를 실시 했는데 매우 좋은 결과와 경험을 했습니다. 각 층에 맞게 교회 주변 길거리에서 “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(Jesus te Ama)” 를 외쳐서 지나가는 자동차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, 교회앞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회안에 모시고와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며 본교회의 잘 훈련된 전도자들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20 여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. 선교사는 지난 약 2 년동안 10 여명의 전도자들을 훈련했는데 이제야 그들이 활약을 하고 제대로 움직여 주어서 그 동안의 수고가 오늘에야 열매를 맺게되어 감사했습니다.
- **현지 국립경찰 초청 전도** : 교회 가까이 있는 경찰서의 현지 국립경찰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성탄예배를 드리며 2-3 명씩 본교회 전도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동안 교회에 잘 출석도 못하고 교회를 잘 모르고 지내던 경찰들이 예수를 영접하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의 임무로 주민들을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 전도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도 나누어 주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

- **2016년 마지막 제직훈련** : 2016년 마지막(매월 1회 훈련) 제직 훈련을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선교사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사용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며, 지금 주님이 당신들에게 금년의 열매를 헤아려 보자고 할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보일지 생각해 보자고 강조했습니다. 그리고 2017년을 좀더 주님앞에 충성하는 각 제직들이 되자고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. 강의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선물도 나누어 주며 한해동안 수고에 감사했습니다.
- **성인 주교 및 어린이 영어교실**
매 주일 예배 후에 실시하는 성인주교는 분반으로 나누어 교사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으며, 그 시간에 최경희 선교사는 어린이 영어 교실을 실시하여 이제는 제법 몇 마디 영어로 인사하는 어린이 들이 있어서 신통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.

제 2 교회 소식

- **창립 3주년 감사 및 새 성전 입당** : 10월 30일 제 2 교회 창립 3주년 및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드렸습니다.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찬양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아직 미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층을 완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. 금년 2월 15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만 8개월만에 허허벌판에 교회가 우뚝서 예배하게되어 더욱 감사했습니다. 이 모든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헌금해 주셔서 단 기간에 이렇게 새 성전에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. 또한 주위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10여명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자리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.
- **새 성전에서 의료선교** : 허허벌판에 갑자기 교회가 들어와 주위에 새 교회를 알리며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의사, 한의사, 간호사, 약사, 미용사, 안경사. 어린이 사역 등 일일 의료 선교를 실시했습니다. 2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료 혜택을 받고 교회를 방문했습니다.
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약품구입을 위해 헌금해 주신분들과 방문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신 분들과 멀리 과테말라 시티에서 당일 오셔서 한방의료 해 주신 한의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**VBS** ; 11월 30일 - 12월 1,2일 3일간 제 2 교회는 자체적으로 금년 처음으로 어린이 VBS 를 실시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100명이상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. 금년이 처음이라서 5명의 교사들이 제 1 교회에서 와서 제 2 교회 교사들과 함께 20여명의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어린이들을 잘 돌보아 매우 좋은 성과를 보았습니다. 교회 성도님들도 간식으로 도와서 부족함없이 교재와 선물도 풍족하여 참가한 어린이들이 한아름씩 안고 돌아 가면서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. VBS 다음 주일에는 새로운 가정들이 새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.

단기선교

10월 24-11월 1일 시카고에서 최상천 장로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제 2 교회의 새 성전에 전기 공사를 해 주셨습니다. 일주일간 땀 흘리며 수고하여 온 성전이 대 낮 같이 밝아서 온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입당예배, 의료선교, VBS 등 교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이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. 수고하신 최장로님께 감사합니다. 또한 수요 예배에서 말씀과 간증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.

2016년을 마감하면서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헌금들이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5명 2어의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.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.

복된 성탄과 희망의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 과 생업과 섬기시는교회 위에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감사합니다. (기도제목과 사진들은 아래 페이지에 있습니다)

과테말라에서 최상득,경희 선교사 드림
기도제목

- 1, 현지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
- 2, 제 2 교회 남은 성전 건축(2 층, 3 층)을 위하여
- 3, 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
- 4, “2017 년을 두 교회의 부흥의해” 를 위하여

제 2 교회 창립 3 주년 및 입당예배



의료선교 및 한방의료



노숙자 초청진도.눈물로영접



VBS



전교인전도의날



국립경찰 어린이안전강의



화산이 폭발하는 모습



마야들이 잡신에게 제사하는 제단



시신 매장지 아파트

